

조이스와 워즈워스의 “우연한 만남”

- 조이스와 낭만주의

이 인 기

필자는 조이스(James Joyce)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한 단편인 「우연한 만남」(“An Encounter”)을 읽을 때마다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결의와 독립」(“Resolution and Independence”)을 떠올렸다. 우선 두 작품은 소재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두 작품이 공히 황야에서 낯선 사람과 우연히 만나는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다가 그 만남을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의 계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작품은 시대적 차이를 초월하는 삶의 본질 혹은 역사의 지속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작품들은 각각 모더니즘과 낭만주의의 작품으로서 뚜렷한 고유성을 드러낸다. 더욱이 조이스가 낭만주의를 실생활로부터 유리되어 현실을 과장하는 태도라고 비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자가 후자의 회화일 수 있을 만큼 다른 감수성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두 작품이 유사한 소재에 대해 다른 감수성을 표현하고 있기에 필자는 두 작품이 비록 각 사조의 대표작이라 칭할 수 없을지라도 각 사조상의 특성을 비교할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물론 짧은 지면에 담기 힘든 포괄적인 비교나 거대담론적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조이스가 낭만주의를 비판한 사실이 있는 체계에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읽는 작업이 적어도 낭만주의에 관한 조이스의 견해를 분석할 기초가 될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필자는 각각의 우연한 만남이 모두 일상 혹은 중심으로부터 이탈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역사적 함의를 찾으려고 한다. 조이스도 위즈워스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분열적 사회구조에 대해 통합적 상상력을 구현하고자 하는 낭만적 기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뒤이어 고찰하게 될 점은 두 작가 사이의 현실인식의 차이인데, 필자는 이것이 각 사조의 고유성을 반영한다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 차이는 통합적 상상력의 성취에 대한 시대적 감수성의 차이를 보여주며 조이스가 낭만주의를 직접 비판한 근거를 밝혀 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조이스와 낭만주의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통합적 상상력이라는 공통분모를 먼저 확인한 이유는 과거를 폐기될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역사에 내재하는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포괄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1. 사회통합적 상상력

널리 알려진 대로 위즈워스는 ‘현재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시들과 실질적으로 다른 시’를 썼는데, 그 배경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의 변혁도 재추적함’으로써 일반적 취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역사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Wordsworth 58). 그의 『서정답시집』(*Lyrical Ballads*) 제3판 서문에 따르면, 당시는 ‘이전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요인들이 현재 결탁하여 정신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고 정신으로 하여금 모든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정신을 거의 야만적인 무지의 상태로 환원시키고 있었다(Wordsworth 64).’ 그는 당시대가 사회적으로는 프랑스와의 전쟁,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번잡한 언론 상황 등으로 혼란스러웠고, 문학적으로는 고딕 소설이나 멜로드라마가 번성하여 방자한 자극을 쫓는 저열한 욕구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정신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지킬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상에서는 자아의 확실성과 단순성이 위협을 받아 낭만적 자아의

경향이 나타나는데(Hartman 48), 필자는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그 경향을 고찰하고자 그것의 집단적 표출로서 분열적 세계관이 조성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워즈워스는 당대 시인들의 관행에서 그러한 현상을 직시하였다.

[오늘날 시인들은] 사람들의 공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정도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예술을 차별화하고 자신들이 만든 취향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의적이며 변덕스러운 표현 습관에 탐닉한다. (Wordsworth 61)

자연과 이성의 보편성을 추구하던 세계관 자체가 스스로 보편성을 상실하고 이성의 절제와 균형에 대한 신념이 퇴락함으로써 시인들은 사람들의 공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성향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시적 관행 자체가 허영과 변덕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장르상의 위계질서와 어울림의 원칙이라는 신고전주의적 관행도 결국은 시인들에게 ‘높은 권좌(Wordsworth 79)’를 마련해 주고 그들의 허영과 변덕을 조장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이처럼 당시의 세계관인 계층적 질서 의식을 구별의 관행으로 폄하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문학적 구체제를 전복하려는 이 같은 시도(Abrams 113)는 「결의와 독립」에 매우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워즈워스는 자신의 화자를 ‘황야’를 여행하는 자로 설정하였는데, 이 같은 비밀상성으로의 일탈 혹은 소풍은 일상 혹은 중심이 대변하는 정통, 권위 혹은 전통 등에 대한 비판의 주요한 메타포이다. 주변으로 나감으로써 중심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모색은 화자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선 그는 자신이 인생의 회노애락에 매여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높은 권좌에 앉아 도덕적 교화의 주체를 자임하던 신고전주의적 시인의 개념에서는 시인 자신이 ‘가끔 그렇듯이(22행)’ 기쁨에 겨운 만큼 깊숙이 좌절 속에 가라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가 없다. 물론 포우프(Alexander Pope)의 경우 계몽된 계층의 낙관적 신조를 표명하는 시를 쓰면서도 남녀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엘로이사가 아벨라르에게 보내는 편지」(“Eloisa to Abelard”)를 쓰기도 했지만, 그 작품은 덕성과 열정의 갈등이라는 추상적인 자질의 구현에 불과한 것일 뿐 시인 자신의 평범한 인간성의 문제를 고백하는 통로는 아니었다. 그러나 워즈워스의 화자는 자신이 보통사람의 성정을 지닌 보통사람임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가끔 그렇듯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마음속의 기쁨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 속에서 솟구친 높이만큼
 그만큼 우리는 낙담 속으로 가라앉는다;
 나에게서는 그날 아침이 그러했다;
 두려움과 망상들이 나에게 빈번히 닥쳐왔다;
 내가 몰랐고 형언할 수도 없는 흐릿한 슬픔—맹목적인 생각들이. (22-28행)

But, as it sometimes chanceth, from the might
 Of joy in minds that can no further go,
 As high as we have mounted in delight
 In our dejection do we sink as low;
 To me that morning did it happen so;
 And fears and fancies thick upon me came;
 Dim sadness-and blind thoughts, I knew not, nor could name.

여기서 워즈워스가 화자로 하여금 망상과 회한을 토로하게 한 주요한 의도는 시인인 화자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사람(Wordsworth 71)'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삶의 위기의식을 노출함으로써 시인은 보통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평범한 삶으로부터 사건과 상황을 선택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를 정선해서' 그것을 묘사하고 '동시에 거기에 상상력의 채색을 가하여' '평범한 사물을 특이하게 상기되도록(Wordsworth 59)' 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을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를 지닌 주체들로 격상시키고자 했다. 화자가 이후에 만나게 될 초라한 행색의 노인은 워즈워스의 이러한 작시 전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그의 말은 희미하게 들려 왔다, 약한 가슴에서 나온 듯,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엄숙하게 차폐차폐 이어졌고,
 무언가 고상한 말로 장식을 한 듯—
 정선된 단어와 가려낸 어구,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당당한 언변이었다;
 엄숙하게 사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듯 한,
 신과 인간에게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신앙인들처럼. (92-98행)

His words came feebly, from a feeble chest,
 But each in solemn order followed each,
 With something of a lofty utterance dressed—
 Choice word and measured phrase, above the reach
 Of ordinary men; a stately speech;
 Such as grave livers do in Scotland use,
 Religious men, who give to God and man their dues.

노인은 비록 거머리잡이라는 비천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엄숙함과 고상함을 지니고서 ‘보통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종교성의 영역으로까지 연장되는 소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워즈워스가 굶주린 아이, 버림받은 여자, 범죄인, 백치 소년 등 오히려 원형적인 모습의 인간들을 시의 소재로 더 자주 삼았던 것도 그들의 척박한 평범함을 허영과 번덕으로 왜곡되었던 삶에 대비시킴으로써 평범함의 진실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는 이에서 더 나아가 시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객관적으로 고찰하며 구별의 관행 자체를 반성하였다.

나는 평생을 유쾌한 생각 속에서 지내 왔다.
 마치 인생의 일이 여름 기분이거나 한 듯이;
 마치 모든 필요한 것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온유한 신앙인에게 항상 풍성히 친절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어떻게 스스로를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씨를 뿌리며 그가 부를 때
 그를 사랑해 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36-42행)

My whole life I have lived in pleasant thought,
 As if life's business were a summer mood;
 As if all needful things would come unsought
 To genial faith, still rich in genial good;
 But how can he expect that others should
 Build for him, sow for him, and at his call
 Love him, who for himself will take no heed at all?

화자는 자신이 ‘평생을 유쾌한 생각 속에서 지내 왔다’고 고백하면서 이 연을

시작하고 있지만 후반에 일인칭이 삼인칭으로 바뀌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시인 전반에 대한 반성으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20-21행에서 토로한 대로('나의 옛날의 기억들이 모두 나로부터 나갔다/ 그렇게 헛되고 우울한 온갖 인간사들이') 유쾌한 생각으로만 지내온 것도 아니며, 적어도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현실적 곤란으로부터 상상적 탈출을 즐기며 살지도 않았으므로 여기서의 '나'는 그가 후반부에 삼인칭으로 지시하는 일반화된 대상의 일인칭적 구체화라 할 수 있다. '나'는 당대 시인들이 집 짓고 씨뿌리며 사랑하는 등의 일상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일로부터 사실상 떨어져 높은 권좌에 앉아 산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뒤이은 연에서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과정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채터튼(Thomas Chatterton)과 번즈(Robert Burns)가 언급되지만, 그들은 '정신에 의해 신이 되는(47행)' 시인이므로 시인이려면 누구라도 겪게 되는 보통사람들과의 근원적인 단절을 표상한다. 그런데 이러한 근원적인 단절조차도 그 연의 마지막인 48-49행에 제시된 시인의 종말에 대한 상념('우리 시인들은 젊을 때 즐겁게 시작하지만/ 곧바로 낙담과 광기가 결국에는 다가온다.')에 이르면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인이 구가하는 구별의 관행도 허무할 만큼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이로써 위트워스는 자신이 시를 공동체적 대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신의 평등주의적 혁명(Abrams 117)'을 시작하였음을 암시하였다. 그는 그 동안 타자의 세계로 간주되었던 개인적인 생활상의 위기의식을 시적 소재로 부각시켰고(Beer 141) 이를 통해 그 삶의 진실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세련된 감상가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술적 기교를 구사하지(Wordsworth 79)' 않고 보통사람들의 단어와 어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느낄 법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계층적 차이에 가려져 있던 인간성의 보편적 가치를 밝혀 보였다. 그가 구사하는 이러한 통합적 상상력은 분명 프랑스 혁명의 이상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으며 비전의 정치학(Abrams 102)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듯 타자의 세계를 부각시키려는 그의 시도는 자신도 언급했듯이 작시법상의 '실험(Wordsworth 56)'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험은 사실상 계급적 사고의 틀에 의해 인간 가치가 정해지는 사회 내에서 그 구조를 뒤흔드는 실험이라 평가할 수 있다(McLane 44). 나아가 그의 '실험'은 셸리(P. B. Shelley)의 지적대로 '차

이를 존중하는 과학적 사고(McLane 31)'가 주도하는 지성과 이성의 시대적 강박 관념을 폐기하려는 기획이기도 했다(Davies 103). 이를 통해서 볼 때, 그가 시인을 '정열과 지식으로 인간 사회라는 광대한 제국을 통합하는 자'로 정의하고 '시인은 인간성을 바위처럼 지켜 낼 방호자이며 지지자이자 보존자이다. 인간관계와 사랑은 그와 함께 항상 동반한다.(Wordsworth 77)'라고 의무를 부여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동료 인간들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유리시키는 근대적인 힘에 대해 통합적 상상력으로 맞섰던 것이다.

조이스는 비정치적인 작가로 규정되어 왔으나 1980년대 벤스탁(Bernard Benstock)이나 맨가니엘로(Dominic Manganiello) 이후 특히 최근에 스푸(Robert Spoo)에 이르러 역사 혹은 정치와의 연관성이 그의 주요 작품 전반에 걸쳐 모티프로서 기능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의 당대에 식민지 조국은 정치의 당파적 분리와,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종교적 분리 등으로 구조적 분리의 내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의 삶의 양태를 지면에 복원하고 '태어나지 않은 동족의 양심을 창조하고자(PA 253)'한 그에게는 당대 현실의 문제가 상상적 조형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분리나 분열에 대한 우려는 조이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그의 「우연한 만남」에서 그가 당대의 분열적 상황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연한 만남」에는 소년들의 놀이와 학교생활을 매개로 사회의 구조적 분리의 문제가 형상화되어 있다. 소년들은 인디언 전쟁놀이를 하며 미국 서부의 황량한 원시 세계를 경험한다. 따라서 그 놀이는 집과 학교로 대변되는 규율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대리만족의 기제가 된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전쟁놀이를 거듭하면서 주인공 소년이 느끼는 것은 일종의 좌절감이다.

학교가 파하면 우리는 저녁마다 그의 뒷마당에 모여 인디언 전쟁놀이를 했다. 그와 그의 똥보 동생 게으름뱅이 리오(Leo)가 마굿간 꼭대기를 지키고 우리가 저기를 기습해서 뺏으려고 했다. 아니면 우리는 풀밭에서 백병전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싸워도 우리는 포위공격을 뚫거나 전쟁에서 이기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우리의 모든 승부는 조우 딜런(Joe Dillon)의 승전무로 끝이 났다.

(D 19)

그 전쟁놀이에서는 딜런 형제가 항상 이겼던 것이다. 그들은 마치 승리를 확

신이나 하듯이 ‘꼭대기’를 점거하고 언제나 승리의 군무를 추었다.

이 같은 소년들의 놀이에는 이기는 자가 늘 이기는 관행, 곧 사회의 제도화된 구별이 암시되어 있다. 이것은 전쟁놀이에서 진짜 인디언처럼 소년들에게 거칠게 굴었던 조우가 사제직에 뜻을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 모두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였다(D 19)’고 인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사회는 이미 이기는 자가 항상 이기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상류층인 사제가 될 사람도 늘 이기던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그들의 학교 수업 시간에 벌어진 한 일화 속에 현실화되어 드러난다. 로마사 수업 시간에 버틀러(Butler) 신부는 리오의 미국 서부 활극류 잡지를 적발하고 꾸중하였다.

—이 쓰레기는 뭐지? 그가 말했다. 『아파치 추장』! 이게 로마사 대신에 네가 읽고 있는 거야? 이 학교에서 더 이상 이런 하찮은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해. 이 글을 쓴 사람은, 내 생각에는, 술 한 잔 마시자고 이런 글을 쓰는 한심한 글쟁이일 거야. 나는 귀군 같이 교육받은 학생들이 그런 글을 읽는다는 것에 놀랐어. 귀군들이 ... 국립학교 학생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자, 딜런, 경고하는데, 공부에 신경을 쓰라구 그렇지 않으면 ... (D 20)

신부의 말 속에는 ‘쓰레기’ ‘하찮은’ ‘한심한’ ‘국립학교’ 등과 연결되는 서부 활극류의 잡지와, 사립학교 수업시간에 ‘교육받은’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로마사라는 정전의 구별이 명확하다. 미국 서부의 활극류는 사실 로마사의 대중 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Ingersoll 38) 그렇다면 결국 고급문화와 저질문화의 차이로 귀착되는 구별이다. 로마사나 활극류나 마찬가지로 정복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 쪽은 학교에서 배우고 다른 한 쪽은 ‘무질서의 연대기(D 21)’로 배척 당한다. 비록 소년이 느끼기에 그것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없고 가끔은 문학적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별이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학교는 이러한 구별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기관으로서 학생들을 사회화시킨다. 그래서 소년이 리오가 꾸중을 들을 때 ‘나에게는 서부 활극의 영광이 많이 퇴색하였으며 리오 딜런의 당황스러워하는 통통한 얼굴이 내 양심의 한 곳을 깨웠다(D 20)’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한 ‘학교의 억압적인 영향’은 마치 소년들의 전쟁

놀이가 개별적인 ‘문화와 기질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제도화된 구별은 이미 소년에게도 내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은 소년을 지루하게 했다. 그는 인디언 전쟁놀이처럼 결국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모험과는 다른 모험을 하고 싶었다. 사회가 정해 놓은 구조 속에서 유순한 말이 한 차 가득 장사꾼들을 태우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묵종하는 것보다 그러한 고착된 규율의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였던 것이다(D 21). 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해 생기는 이 같은 일탈의식은 위즈워스의 화자가 표출한 위기의식과 마찬가지로 낭만적 ‘나’의 한 양상이다(Peake 17).

소년은 마호니(Mahony)와 함께 무단결석을 감행한다. 위즈워스의 화자처럼 그들도 비일상성으로의 소풍을 시도함으로써 주변부가 제기하는 중심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타자에 대한 인식이 위즈워스의 화자처럼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는 구별의 관행이라는 분열적 세계관을 돌파하는 첫걸음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가기로 결정한 곳이 피전 하우스(Pigeon House)였던 점이 이를 방증하는데, 그곳은 발전소였으므로 상징적으로는 구별이 고착화되어 지루해져 버린 사회를 통합할 활력의 원천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풍은 통합 혹은 회복을 위한 행위의 상징이 된다. 당연히 그곳에는 소년들도 확인하듯이, 구별의 규율을 대변하는 버틀러 신부는 없다(D 21).

그들의 무단결석은 일단 그러한 규율을 재생산하는 ‘공공의 시선(D 22)’을 벗어나게는 하였다. 하지만 조이스는 그 시선을 벗어난 것만으로 비전의 성취를 구가하지는 않았다. 집과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도 역시 그러한 구별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와프(Wharf)가를 걷다가 누더기를 입은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일 때 그 아이들은 마호니의 모자 배지를 보고서 신교도들이라고 놀렸다. 엄밀한 개인의 신앙 문제까지도 어린아이들에게 교육될 정도로 뿌리깊은 구별의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은 분명히 조이스가 아일랜드 역사의 텍스트를 불러들인 결과이다(Ingersoll 39).

그러나 그곳에서 소년은 인디언 전쟁놀이 방식으로 그 아이들을 협공하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어렸고 포위공격을 하기에는 한 명이 모자라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목표가 그 아이들을 이김으로써 그가 지루해 했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와 집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즈음에 소년이 리피(Liffey)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더블린

을 남북으로 나누는 리피강을 건넌으로써 그는 이러한 구별의 관행을 상징적으로 가로지른다. 더욱이 그가 노동자 두 명, 유대인 한 명과 함께 도강을 하는 과정은 사회의 계층적, 인종적 차별의 관행까지도 가로지르는 의미가 있어서 그 순간은 장엄할 정도로 진지하기까지 하였다(D 23). 따라서 이 행위는 소년의 뒤에 숨은 작가 조이스의 '진정한' 모험의 한 양식일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두 작가가 형상화한 '실험'과 '모험'은 두 작가의 사회통합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화자가 주변부로 나간 행위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혼용하는 주변부의 속성상 구별과 배제로 일관하는 중심에 대해 통합의 힘을 현시하는 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화자의 자기소외가 낭만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면(Calinescu 43), 그 연장선의 끝에 조이스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분열적 자의식으로부터 통합적 상상력으로의 전이를 탐색하는 일이 낭만주의의 요체(Hartman 50)라는 점에서 조이스의 낭만적 소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동시대의 일부가 되는 것, 즉 그 시대의 문제들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미학의 차원을 넘어 거의 도덕적인 의무이었듯이(Calinescu 38), 조이스도 자신의 작품에 대해 '내 조국의 정신적 해방을 위한 첫걸음(Letters I, 63)' 혹은 '내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Letters II, 134)'을 언급하는 등 예술가의 사회적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Peake 2). 그가 소년의 행위에 사회통합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그러한 인식의 구현이다.

2. 성취의 열망과 성취의 우울

그러면 사회의 제도화된 구별의 관행을 돌파하고자 한 두 작가는 그들의 상상력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했는가? 두 작가는 일차적으로 화자들로 하여금 일상 혹은 중심을 떠나 주변부로 나가게 함으로써 소위 구체제의 일상성을 전복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그들의 '실험'과 '모험'의 구현 양태는 그들의 시간적 간격만큼이나 상이하였다. 특히 그 주변부를 통합의 여력을 발휘할 공간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비중심부라는 잔여적 개념을 재확인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위즈워스의 화자는 황야에서 한 노인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위즈워스가 그

노인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고 과거의 그 만남을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화자는 바로 시인 자신이다. 그가 만난 노인은 햇빛 아래서 쉬고 있는 바다짐승처럼 보였는데, 마치 산 정상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바위가 눈에 띄듯이 두드러져 보였다. 노인이 이처럼 산 정상의 바위나 바다짐승 혹은 구름에 비유되는 등 자연물로 변형되고 있는 점은 그가 사실상 자연의 화신임을 암시한다. 화자는 의인화된 자연을 만난 것이다.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틴턴사원」(“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에서 표명된 대로 ‘이 순간에 미래의 세월을 위한/ 생명과 양식이 있다 ...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을 가르치고 고요함과 아름다움의/ 인상을 심어 주며 또 높은 사색으로/ 먹여 주기 때문(64-128행)’인 존재이다. 이 때문에 화자는 무인지경의 황야에서 우연히 노인과 마주쳤어도 괴이함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은총의 예감을 갖는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인지,
하늘의 인도인지, 아니면 어떤 선물인지 모르겠으나,
...

이 사람이 바로 그러했다, 너무 나이가 들어
완전히 산 것도 죽은 것도 잠든 것도 아닌 듯했다;
인생행로에서 발과 머리가 맞붙어
그의 몸은 꼬부라져 있었다; (50-67행)

Now, whether it were by peculiar grace,
A leading from above, a something given,

...

Such seemed this Man, not all alive nor dead,
Nor all asleep-in his extreme old age;
His body was bent double, feet and head
Coming together in life's pilgrimage;

분명히 노인은 묘사된 대로라면 그 행색에서 고딕적 기괴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노인을 두고서 코올리지(S. T. Coleridge)의 노수부(The Ancient Mariner)나 방랑하는 유대인을 연상하는 경우도 있다(Beer 142). 하지만 그 경우는 화자가

노인과의 만남을 ‘특별한 은총, 하늘의 인도 아니면 어떤 선물’로 여기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것처럼 일방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점은 위즈워스가 자신의 자연관을 의도적으로 표명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같은 노인과의 우연한 만남은 마치 조이스의 이피파니를 구현한 듯한 인상을 준다. 다만 조이스에게서는 그 순간의 찰나성을 즉시 인식하고 있음이 표명되어 있다면 위즈워스에게는 ‘먼 영토로부터 보내진(111행)’ 시혜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다가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점이 다르다. 노인의 존재는 화자에게는 그 자체로서 ‘적절한 훈계(112행)’였다. 분열적인 자의식으로 변민하고 있던 화자로서는 ‘미래의 세월을 위한 생명과 양식’을 발견한 것이다. 그 노인은 연못에서 연못으로 떠돌며 황야에서 황야를 헤매고 잠잘 곳도 변변히 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고초를 견뎌 왔으므로 화자를 괴롭히던 ‘정직한 생계(105행)’와 ‘생명을 줄이는 공포/ 채워지지 않는 욕망/ 추위와 고통과 노고 그리고 온갖 육체의 질병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위대한 시인들(113-117행)’에 대한 번민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화자는 결국 자신의 삶의 위기의식을 해결하고자 노인에게 ‘어떻게 살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88행; 119행). 그 질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부담스럽게 했던 ‘집 짓고 씨뿌리며 사랑하는’ 등 일상적인 일에 대해 국외자로 산다는 자의식을 해소하고 ‘정직한 생계’를 영위할 도덕적인 힘을 회복할 계기를 얻으려 했다. 마침내 화자는 굳건한 정신을 체화하고 있는 노인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저런 노쇠한 노인에게서 이처럼 굳건한 정신을
발견하고서 나를 비웃을 뻔하였다.
“하느님,” 나는 말했다. “나를 도와주시고 든든히 지탱해 주소서;
나는 쓸쓸한 황야의 거머리잡이를 생각하겠나이다!” (137-140행)

I could have laughed myself to scorn to find
In that decrepit Man so firm a mind.
“God,” said I, “be my help and stay secure;
I’ll think of the Leech Gatherer on the lonely moor!”

그런데 여기서 화자가 노인과 합일하려는 행위는 엘리야데(M. Eliade)의 말을 빌면, 원형에로의 회귀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은 그를 지칭하

는 말이 대문자로 표기된 것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너무 나이가 들어/ 완전히 산 것도 죽은 것도 잠든 것도 아닌 듯’한 자연의 화신으로서 원형 혹은 실재를 표상하기 때문이다(Beer 143 참고). 그러한 시도는 현실과 원형 사이에 놓인 시간의 간극을 소거하는 행위이며 결국 원형을 반복함으로써 원형이 지닌 생명력을 현실 속에 회복하려는 의식과도 같다. 실제로 화자가 노인과의 합일을 결의하는 순간 그는 삶의 위기의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재생의 장치를 자신 속에 확립시키게 되며, 그 순간 화자는 『서곡』(*The Prelude*, 1850)의 화자처럼 자연 속에서 ‘내 자신의 부자연스런 자아의 짐이/ 수많은 피곤한 날들의 무거운 무게가(21-22행)’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순간 화자가 ‘하느님’을 부른 것은 그 합일의 순간이 거룩하고 장엄하기 때문이다(Eliade 35).

한편, 이처럼 원형을 현실 속에 반복함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행위는 위즈워스의 자연을 매우 신비주의적이며 반역사적인 형상으로 구현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과 동일시되려는 시도를 통해서 분열적 현실에 대한 구원을 암시한 태도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며 역사에 대한 저항의 한 양식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상이 화자가 처음부터 부심해온 ‘정직한 생계’에 대한 그의 고민을 면제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바로 그 장엄한 순간에도 삶의 위기의식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주고 든든히 지탱해 주소서; 나는 쓸쓸한 황야의 거머리잡이를 생각하겠나이다!”라는 결의는 여전히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에게 자연은 도피를 유혹하는 주변부가 아니라 재생의 힘을 회복하여 현실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위즈워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연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분열적 현실에 대해 통합과 재생의 힘을 부여하는 것도 상상력이며 동시에 현실의 위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즈워스에게 있어서 삶의 재생력은 자연이나 역사 혹은 진보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실패한 연후 위기가 닥쳤을 때 상상력으로 구현되는 정신과 언어의 지속적인 힘 속에 존재하게 된다(de Man 69). 그의 상상력이 자연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연계된 것이라는 주장(de Man 70)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이 그 자체로 치유를 실행하는 신비를 지녔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결의를 다지는 것이 결국 화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즈워스가 상상력을 통해 현실을 변형하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획 자체의 오류나 자신의 개인적인 한계를 노정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사실상 신고전주의의 계몽주의적 사고를 혁신하고자 했지만 삶의 본질적인 면모를 추구하는 등 여전히 그러한 사고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의 계급적 가치관을 허물고자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삶의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것은 물상과 형이상학의 간격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아서 결국에 신고전주의적 언어관을 답습하는 결과로 귀착되고 만다. 또 다른 한편에, 보통사람들을 승화하려는 시들이 정작 그 시의 정당한 독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는 혐의를 받는 점은 그의 위선을 폭로하는 듯하기도 하다. 19세기까지는 유럽 농업 인구의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문자를 통한 문화의 전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Rietbergen 160-61) 그는 사실상 그들을 위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Davies 104).

그러나 이 모든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에 기초하여 평범한 외형과 고귀한 진실의 합일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정신과 외부 세계의 통합이라는 이상적 상태를 성취하려는 목표를 설정한 태도(Pinion 94)는 분열적 현실과의 격차만큼이나 위대해 보인다. 비록 그 이상적 상태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취를 향해 결의를 다지는 태도를 구상한 점은 역사의 지속에 대한 신뢰와 삶에의 열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즈워스는 ‘먼 영토로부터 보내진’ 계기를 낭만적 초월의 순간으로 용인하면서도 최종적이거나 영속적인 체험으로 형상화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상상력이 현실을 토대로 성취에의 열망을 배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위즈워스는 상상력을 통해서 자연으로의 회귀와 그것에 의한 도덕적 힘의 회복을 구현함으로써 삶에의 열정을 암시하였다. 조이스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의 직접 경험(Letters II, 111)이 상상력의 소재가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위즈워스의 화자가 텍스트를 직접 쓰며 자신의 각성을 표명했다고 한다면, 조이스의 화자인 소년의 경우는 그 자신이 텍스트를 직접 쓰려고 했으나 읽기를 강요하는 현실의 힘만 부각될 뿐이었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소년의 리피강 횡단이 지나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구별과 배제의 관행은 지속되었다. 소년은 자신의 모험을 상징적으로 지지해 줄 초록색 눈의 ‘오디세우스’를 찾았지만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선원은 익살꾼에 불과했고

선원들의 가족들이 사는 링센드(Ringsend) 지역은 색 바랜 과자들 마냥 피폐하여서 사회적 계층의 구별만 확인시킬 뿐이었다. 따라서 소년이 꿈꾼 진정한 모험은 상징적 의미에서나 현실적 상황에서나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애초 소년의 무단결석이 지닌 사회통합적 시도 자체가 낭만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회화화를 의도한 듯한 인상마저 준다.

시들해진 소년과 마호니는 들뜬에 말없이 누워 있게 되었다. 날씨마저 무더웠고 태양은 그들이 지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구름 뒤로 숨었다(D 24). 위즈워스의 노인도 ‘하늘의 눈’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나(S4행) 그 태양 때문에 활력이 소진되지는 않았던 점은 조이스의 자연에 대한 태도가 위즈워스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이것이 조이스가 자연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의 무단결석을 집에 비밀로 하기 위해서 4시전까지 돌아가야만 했던 점을 염두에 둘 때, 위즈워스의 화자가 의지에 따라서는 일상으로부터의 낭만적 초월을 구가할 수도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조이스의 자연이 무더위로 상징되는 물리적 장애와 더불어 모험 자체의 불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있는 사실은 포착할 수 있다. 조이스에게 자연은 소년으로 하여금 피친 하우스로 가기 위해 헉 핀(Huck Finn)처럼 뗏목을 타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들의 모험은 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위즈워스가 분열적 현실을 치유할 수 있었던 자연도 조이스에게는 현실의 연장일 뿐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소년들에게 다가온 노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노인은 위즈워스의 노인처럼 꽤 나이가 들었고 무언가를 찾는 듯이 지팡이로 풀을 툭툭 치면서 걸어 왔다. 하지만 그는 행색에서부터 위즈워스의 노인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채색되어 있다. 그가 너절하게 걸치고 있던 옷은 닳아서 녹색 빛이 도는 검은 색이었는데 녹색이 소년에게 모험의 상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색은 그 모험에 대한 불길한 결과를 암시한다. 게다가 그 색은 ‘자매들’(*The Sisters*)의 플린(Flynn) 신부의 옷(D 12)을 연상시키기도 하므로 그 노인은 마비의 현시일 수 있다. 따라서 그 노인이 소년들에게로 다가온 것은 그들이 벗어났다고 믿었던 현실의 그림자가 마치 마비가 다가오는 양 다시 환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은 소년들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의 행색으로부터 예상했던 대로 소년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노인은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그들이 박차고 나왔고 벗어났다고 생각한 학교의 영향이 여전히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듯 ‘교육’을 하였다. 소년들이 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의 ‘교육’은 한 동안 독백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어서 그는 토머스 무어(Thomas Moore), 월터 스캇 경(Sir Walter Scott), 리튼 경(Lord Lytton)을 언급하면서 그 작품들을 읽었다고 물었고 소년은 자신이 마호니와 동류로 취급되는 것이 싫어서 그 책을 다 읽었다고 했다. 소년이 스스로 우월성을 의식하고 있는 점은 그의 모험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조이스가 소년을 결정화된 모형으로 형상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노인은 그런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을 수 없는 작품도 있다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정짓고자 했다. 이로써 그는 구별을 교육하는 사회 제도를 반영하는 인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그가 책을 탐독하고 억양도 좋게 들릴 정도로(D 26) ‘교육받은’ 흔적을 드러내는 점도 이 사실을 방증한다.

거의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던 노인은 갑자기 자신의 미소녀 탐닉 성향을 내비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변태적이기까지 한 성적 권력의 표명일 수 있다. 하지만 소년은 노인의 말을 다소 자유분방한 성향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소년이 학교에서 몰래 읽은 책 속에서 선망하였던 ‘단정치 못한 난폭한 미녀(D 20)’에 대한 욕구를 환기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년의 모험에서 다소 성인적인 동기를 찾는 견해도 있다(Ingersoll 37). 그 견해가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는 잠시 후 노인이 소년들을 두고서 혼자 멀리 떨어져 수음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할 때(Peake 17; Ingersoll 42) 마호니가 망측하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 못한 사실에서 자신의 욕망이 너절하게 현시되는 것을 목도할 수 없었을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이 돌아오자마자 고양이를 쫓아간 마호니의 행동에서 소년은 노인의 행위와 자신의 욕망이 현시되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마호니는 들판을 가로질러 암코양이를 쫓아갔으나 다시 놓쳤고 고양이가 사라진 벽 너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는 들판의 맨 끝에서 정처 없이 어슬렁거렸다(D 26-27). 그의 행위는 부채한 대상을 향해 ‘돌’을 던지고는 들판의 ‘언저리’에서 ‘목적 없이’ 빈둥거리는 수음행위의 적나라한 형상화인 것이다. 이 때문에 잠깐의 침묵 속에서 그의 행동을 지켜본 노인이 마호니를 학교에서 자주 매를 맞는 매우 거친 아이로 매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유분방해 보이던 이전과는 달리 ‘저렇게 거친 소년’은 흠뻑 두들겨 패 주어야 한다고 거의 적개심 어린 듯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소년은 노인의 말에 수긍하기보다는 오히려 항변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다. 이 점은 조이스에게 있어서 반복이 의미의 강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구나 노인은 나중에 소년에게 자신의 말을 이해해 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D 27) 반복이 의미의 전달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조이스에게 있어서 반복의 행위는 위즈워스의 경우 재생의 경험을 암시하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년이 노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생각이 동일한 궤도를 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장면은 반복에 대한 조이스의 생각을 집약하고 있다.

그의 마음이 마치 다시 자신의 말에 자력으로 끌린 것처럼, 천천히 그 새로운 중심의 주위를 돌고 또 도는 것 같았다. (D 27)

조이스에게 있어서 반복의 행위는 앞서 노인의 행색에서 암시된 바 있는 마비의 한 양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복에 대한 비판은 근대성과 동의어적 개념이라는 평가(Calinescu 66)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신이나 원형의 개념이 관념 속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신에게로의 귀의나 원형의 반복을 통한 재생의 경험이란 무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근대성의 출발 시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의 평가가 모호해질 수 있기는 하지만, 반복에 대해서 위즈워스와 대비되는 측면을 노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대성은 조이스가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기괴한 행색과 소년을 교육하려는 태도는 코올리지의 노수부를 닮았고 그가 탐독하는 작가들이 낭만주의 시대에 속해 있으며 언어가 육화되는 순간을 암시하는 듯 그가 말할 때 몸을 가끔씩 떨었던 점 등은 그가 낭만주의를 표상하는 장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의 언행의 비현실적인 측면은 낭만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미소녀 탐닉증은 40세가 넘어서야 겨우 결혼을 하거나 연애 감정도 없이 현실적인 조건으로만 결합을 해야 했던 당시의 남녀 관계의 일상을 견주어 볼 때 그의 방황하는 현실이 대변하듯 일탈 혹은 퇴영을 반영하며 현실로부터의 일탈이나 탈출을 의도하는 낭만주의의 퇴락을 비꼰다. 그의 수음 행위는 그러한 낭만주의의 본질을 형상화하고 있다.

실제로 조이스는 파워(Arthur Power)와의 대화에서 라마르핀느(Alphonse de

Lamartine)의 시를 언급하는 중에 현실성의 관점에서 낭만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어떤 예술 작품이든 감정의 전이가 그 목표입니다; 그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재능인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Joyce] 당신이 낭만주의자들을 흠모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타파된 신화가 있다고 한다면 낭만주의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현존하고 있으며, 내가[Power] 대답했다, 항상 존속할 것입니다.

-그렇 수 있겠지요, 하지만 리얼리즘 속에서 당신은 세계의 기초인 사실이란 것을 묵도합니다: 그 불현듯 나타나는 현실성이 낭만주의를 박살내지요.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모종의 좌절당한 낭만주의, 모종의 실현 불가능하거나 오인된 이상 때문이지요. 사실상 당신은 이상주의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시인들이 그래야 했듯이 사실에 입각해서 산다면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Power 98)

조이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성이며 그것만이 현실을 오도하는 이상주의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연으로부터도 낭만주의적 세계관을 제거해 버린다.

자연은 매우 비낭만적입니다. 그 자연에 낭만, 즉, 그릇된 태도, 혹은 온갖 자기중심벽처럼 불합리한 이기주의적 태도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Power 98)

이 같은 조이스의 비판적 견해는 소년이 노인을 떠나는 것으로 명백히 표명되었다. 위즈워스의 화자가 노인에게서 삶의 자양을 얻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년은 오로지 탈출의 기회만을 모색하고 있었다. 노인이 마호니를 겨냥해서 폭력적인 언사들을 쏟아 낼 때 소년이 움찔하여 엉겁결에 보게 된 노인의 눈 색깔이 공교롭게도 병의 색깔 같은 녹색이었던 점은 소년에게 더 이상의 지체가 무의미함을 알리는 서사상의 장치이다. 이 시점에서 노인의 언사는 어린것들이 여자 애에게 이야기도 못하도록 매질을 해야 한다며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 되어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양태를 띠게 된다. 소년은 노인의 독백이 잠깐 멈춘 틈에 갑자기 일어서 버린다. 비록 마호니와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거나

떨리는 것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신발을 고쳐 신고도 그 노인이 발목을 잡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사실상 마비의 덫을 벗어나게 된다. 위즈워스의 화자가 노인을 원형으로 삼고 자아의 소거를 통해 합일하는 체험을 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년은 노인의 ‘교육’에도 동화되지 않은 채 자아의 존재를 고수함으로써 모더니즘적 자아관을 구현하였다(Eliade 34 참고). 어쨌든 애초 소년의 모험의 의미를 대변하였던 녹색은 우스꽝스런 녹색 눈의 선원을 거쳐 마비의 형상인 노인의 눈에 이르러 상징적으로는 세상을 녹색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의 불가능성을 오히려 부각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소년이 이 모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생활을 반추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일말의 성취이다.

— 머피!

내 목소리에는 억지로 용기를 낸 듯한 억양이 배어 있었고 나는 찌찌한 피가 부끄러웠다. 나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했고 그제서야 그는 나를 보고서 대답으로 큰 소리를 질렀다. 그가 들판을 가로질러 내게로 달려올 때는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그는 마치 나를 도우려는 듯 달려 왔다. 그래서 나는 뉘우쳤다.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그를 약간 무시했었기 때문이다. (D 28)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위즈워스의 화자가 경험한 결의와 독립의 순간에 비하면 장쾌하거나 결연하지도 않아서 ‘미성숙한 자기현시’로 비치는 데다 오히려 떠나왔던 사회로 귀환함으로써 ‘익숙한 세계의 반가운 안전함 속으로 후퇴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노인이 대변하던 ‘불모의 성인 세계’에 굴복한 것(Peake 18)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조이스에게서는 위즈워스와는 달리 성취의 우울함(Calinescu 66-67)이 주조를 형성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결말에 의거한다면 조이스는 매우 허무주의적이다. 그러나 그가 구현하고자 한 사회통합적 상상력이 분열의 치유를 지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결말에 나타난 허무주의적 암시는 그가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위즈워스도 현실을 도피하거나 초월하는 열망에 매달린 것은 아니지만, 조이스는 자신의 낭만주의에 대한 논평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현실성은 작가가 ‘그 시대의 삶을 묘사하려는 의도’에 따라 형성된 태도이며 ‘그것을 무시하면 가식이 된다’고 믿고 있던(Power

97)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지난다 인생의 흐름이, 그런데 그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지다(U 5.563-564)’며 현실에 기초한 상상력의 발현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소년은 비록 노인을 통해서 그가 살았던 사회가 마비의 진원지임을 확인하였지만 마호니와 함께 그곳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차린 것이다. 이는 어린 소년이 무단결석을 한 뒤 귀가한다는 플롯 전개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결국 그 사회에서의 생활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관련해서도 타당한 절차이다.

위즈위스와 조이스가 통합적 상상력을 전개한 결과는 성취의 열망과 성취의 우울로 귀착된다. 위즈위스의 화자가 소풍을 갔던 자연이 화자의 분열적 자아를 치유하여 결의와 독립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분열적 사회에 대한 통합의 열망을 담지하였던 반면에, 조이스의 소년이 일상을 탈피해 들어가게 된 들판은 마비의 표상인 노인이 암시하듯이 분열적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표출함으로써 떠난 사회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위즈위스에게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재생의 계기를 제공하는 반면에 조이스에게는 그러한 탈출의 현실적 제약이 두드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조이스가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강조한 현실성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하지만 위즈위스의 상상력 자체도 화자의 번민이 보여주듯이 역사적 참조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그가 얻게 된 재생의 경험도 결국 한계를 지닌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그의 현실 인식 또한 현실성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작가 사이의 현실성의 차이는 도시적 감성의 전개와 관련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조이스가 자연을 매우 비낭만적이며 중립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근원에는 당대의 감성이 도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Power 97). 모더니즘을 반낭만주의적이라고 본 것은 1차대전 직후의 일(Hartman 50)로서 전원을 대상으로 한 낭만주의와 도시를 배경으로 한 모더니즘의 대비는 결국 도시화의 전개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3. 맺는 말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은 분열적 일상의 형해를 인식하게 한다. 조이스의 ‘타라로 가는 지름길은 홀리헤드를 경유하는 것이다(PA 250)’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듯

이 아일랜드를 알려면 아일랜드를 떠나야 하는 식의 자기소외는 자기인식의 기본 과정으로서 워즈워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태도이다. 워즈워스와 조이스는 공히 사회를 벗어나 자연으로 들어간 화자들을 통하여 당시대의 분열적 사회 구조를 드러내 보였다. 두 작가는 그 구조에 대하여 통합적 상상력을 구사하였는데, 워즈워스의 화자가 빈민하던 문제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비전의 정치학(Abrams 102)을 암시하였고 이는 조이스의 소년을 통해서도 동일한 과정의 구현으로서 시도되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르는 낭만주의 시기를 문학사적으로 연장한 최후의 시점이 모더니즘이라 칭할 수 있다는 평가(McLane 7)는 이처럼 구체제의 전복이라는 공통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상성으로의 이탈 혹은 소품을 전개하는 과정은 현실적 상황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노정하게 된다. 조이스에게 있어서 탈출과 비상은 통합적 상상력의 성취에 대한 열망을 전제하기에는 현실적인 고려가 앞서며 그것은 낭만주의의 유토피아적 관점과 대비된다. 워즈워스가 인간과 자연을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적응되어 있는 존재, 즉 통합적 존재로서 간주하는 유토피아적 믿음(Wordsworth 76)을 갖고 있었으므로 자연의 생명력을 현실에 반복할 열망을 표명하였던 반면에, 조이스는 자연을 중립적 존재로서 인간의 헛된 욕망의 덧칠이 왜곡시키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상력의 현실적 구현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암시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워즈워스도 상상력의 현실 변형력이 제공하는 초월적 체험의 지속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유효를 암시하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이스와는 단지 현실인식의 차이만을 노정할 뿐 현실도피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관점을 고수하였던 것이 아니었던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두 작가 사이의 현실인식의 차이는 현실의 구성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시대는 변화를 통해 새롭게 되지만 그 변화는 구조화되고 그 구조 또한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어느 한 곳에 고정된 시점으로 두 작가의 감수성을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실 통찰의 자세이다. 살펴본 대로 분열적 사회구조에 대해서 통합적 상상력을 구성하며 역사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자세의 바탕 위에서 인 것이다. 그래서 조이스의 비판은 고착화된 낭만주의가 그의 당대 도시적 감성에 상응하지 않는 달콤한 감상적 작품을 추구했던 경향(Power 96)을 겨냥한 것이지 낭만주의 세계관 자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용 문헌

- Abrams, M. H. "English Romanticism: The Spirit of the Age." In Harold Bloom.
Ed.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Essays in Criticism*. New York:
Norton, 1970, pp. 91-119.
- _____.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4th ed. Vol. 2.
New York: Norton, 1979.
- Beer, John. *Wordsworth in Time*. London: Faber & Faber, 1979.
- Calinescu, Matei. *Five Faces of Modernity: Modernism, Avant-Garde, Decadence,
Kitch, Postmodernism*. Durham: Duke UP, 1987.
- Davies, Hunter.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New York: Atheneum, 1980.
- De Man, Paul. "Time and History in Wordsworth." In *Romanticism*. Ed. Cynthia
Chase. London: Longman, 1993, pp. 55-77.
- Eliade, Mircea.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or, Cosmos and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P, 1974.
- Hartman, Geoffrey. "Romanticism and Anti-Self-Consciousness." In *Romanticism*.
Ed. Cynthia Chase. London: Longman, 1993, pp. 43-54.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UP, 1996.
- Joyce, James.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 _____. *Dubliner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New York: Vintage Books, 1986.
- McLane, Maureen N. *Romanticism and the Human Sciences: Poetry, Population,
and the Discourse of the Species*. Cambridge: CUP, 2000.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Pinion, F. B. A. *Wordsworth Companion: Survey and Assessment*. London: Macmillan, 1984.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Ed. Clive Hart. London: Millington, 1974.
- Rietbergen, Peter. *Europe: A Cultural History*. London: Routledge, 1998.
- Wordsworth, William. *Lyrical Ballads*. Ed. Michael Mason. Longman Annotated Text. London: Longman, 1992.

Abstract

Joyce's Encounter of Wordsworth: Joyce and Romanticism

Ihn-key Lee

In terms of subject and its development, "Encounter," one story out of Joyce's *Dubliners*, can be compared with Wordsworth's "Resolution and Independence." Both, despite their different genres, tell the narrator's encounter of a strange old man in the wilderness, which leads to awake the narrator to the reality of life. Although the awakening in the wilderness represents their identical desires to overturn the Ancient Regime of social discrimination, they have as different ways to seek its fulfillment as they belong to the different times. While Wordsworth is proposed to believe that esemplastic imagination will help the narrator to reach fulfillment, i.e. resolution and independence, Joyce is to suggest that the narrator can try only to reveal the melancholy of the fulfillment because he thinks people in the modern world are besieged by paralysis. It follows that Joyce seems to be more realistic than Wordsworth, who describes the fulfillment as taking place in the natural world outside human society. It is likely that Joyce intends to parody the scheme when he represents the narrator under the guise of a similar configuration to that of Wordsworth's. Wordsworth is, however, not escapist but rather looks into society through imagination. When he believes that society can be integrated through the transference of nature's esemplastic power, he is supposed to idealize the world and resist history. All the same, he does not hold on to the idealistic pose and he has the narrator prepare to return to society with resolution and independence. It proves his own form of realism. Therefore, what they both want to show through the encounter is their own realistic methods to awake to the reality of their contemporaries' lives, whether one tries

to hold to the aspiration of integrating society, or the other to presume the dark shade of aspiration.

■ 주제어 : encounter, esemplastic imagination, Romanticism, Modernism, the aspiration of the fulfillment, the melancholy of the fulfillment, reality (우연한 만남, 통합적 상상력, 낭만주의, 모더니즘, 성취의 열망, 성취의 우울, 현실성)